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친구와 다투고 나서 “혼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미워지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 주어요.

사울 왕은 오랫동안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달랐어요.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슬퍼했어요. 사울이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미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복수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도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했을 때 똑같이 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바라세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함께 따라 말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래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말씀봉독 사무엘하 1:1~16절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요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세요.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나요, 슬퍼했나요?
2. 우리가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